



한국의 교역지표와 심리지표에서 확인되는 부담

1. 무역수지에 대한 관심과 경제의 부담 확대

- 무역수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은 수출물가대비 수입물가가 빠르게 상승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
- 수입물가의 빠른 상승은 교역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의 이익 모멘텀 둔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해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2. 소비자심리 회복의 이면

- 소비자심리는 회복세 지속. 소비지출전망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발견되었지만, 실제 지출에 연결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확인.
- 기대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이 지속, 임금수준전망은 지난 9월에 전월대비 -2pt 하락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음.
- 소비자입장에서 인플레이션 부담과 더불어 임금수준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제 소비 지출의 확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3. 기업심리 부진, 채산성 부담이 큰 상황

- 소비자심리와 달리 기업심리는 반등을 못하고 있음. 아직 장기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난 9월 크게 둔화된 이후 회복을 못하고 있음.
- 채산성 실적은 전월비 -6pt 하락. 업황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 제조업 경영애로사항에 있어서 가격부담 요인이 여전히 1순위로 꼽히고 있어 기업의 채산성 부담이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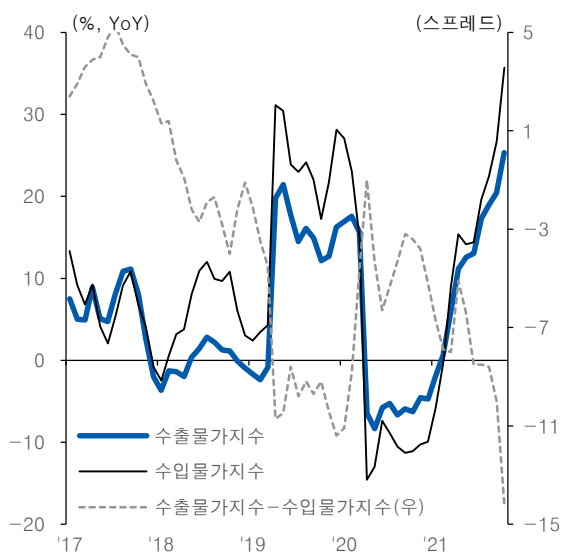
1. 무역수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

11월 20일까지 한국의 대외교역 실적은 수출이 전년대비 +27.6% 증가한 39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대비 +41.9% 증가한 3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치상으로는 보면 여전히 글로벌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외교역 증가율 보다 현재 주목할 지표는 무역수지로 생각된다. 무역수지는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수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10월 무역수지는 17.82억 달러로 지난 4월을 제외하고 연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월말까지 실적이 집계 되어야 하겠지만 11월 20일까지 무역수지는 0.7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지난해와 달리 크게 낮아진 흐름이다. 즉 현재의 무역수지 상황은 4분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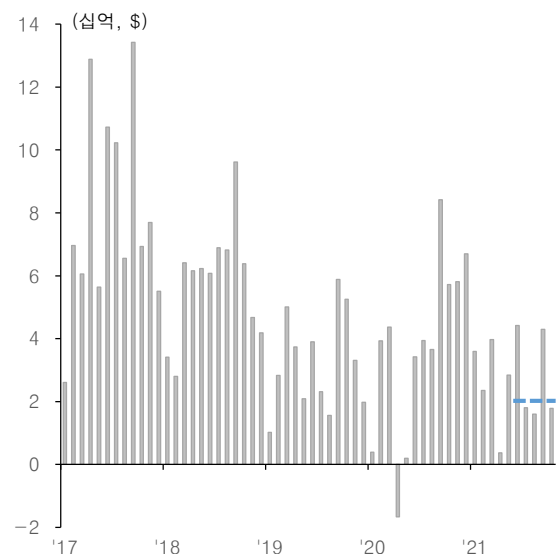
무역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의 원인으로 수출물가대비 수입물가가 빠르게 상승하여 현재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입물가의 빠른 상승은 경제에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가의 빠른 상승은 교역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의 이익 모멘텀 둔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해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차트1] 한국의 수출입 물가 추이. 수출물가 대비 수입물가의 빠른 상승은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최근 무역수지는 지난 5년간 추이와 비교해서 크게 낮아진 상황. 수입물가의 빠른 상승을 원인으로 생각.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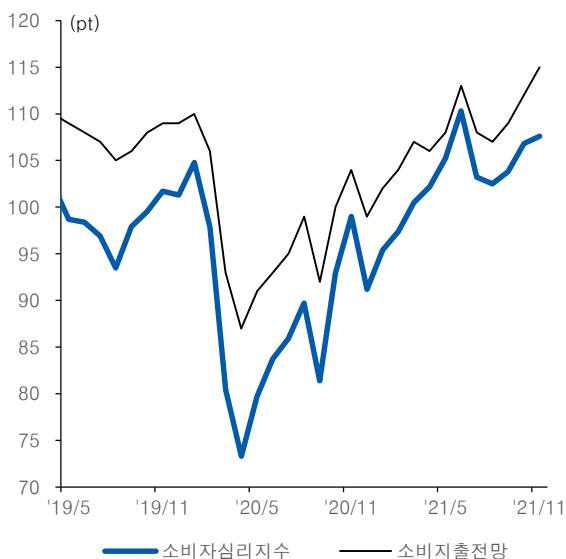
2. 소비자심리 회복의 이면

한국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6을 기록하면서 전월대비 +0.8pt 상승하였다. 소비 지출전망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발견되었지만, 실제 소비 지출에 연결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확인된다.

동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볼 때, 지난 10월과 비교해서 특별히 급등한 항목은 관측되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소비지출전망이다. 동 항목의 상승 이유는 위드 코로나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기대감과 실제 계획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행비에 대한 지출전망이 전월대비 +4pt 상승하면서 10월에 이어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외식비와 문화비 역시 11월에도 전월대비 +3pt 상승하였고,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국면이 진행되면서 소비 의증에 있어서 탄력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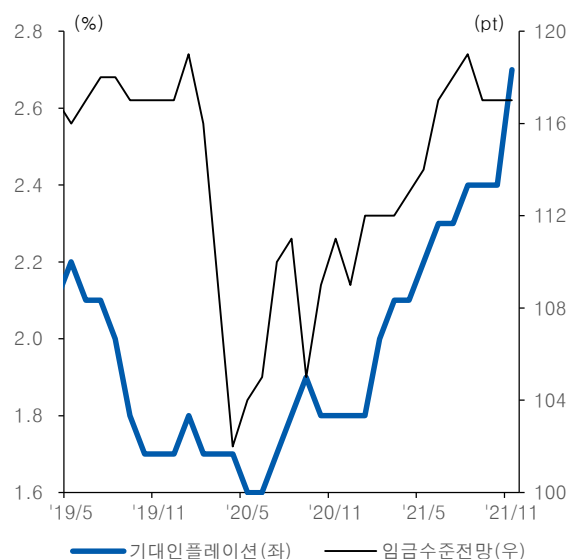
하지만 여전히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 더하여 임금수준 전망은 지난 9월 전월대비 -2pt 하락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입장에서 인플레이션 부담과 더불어 임금수준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제 소비 지출의 확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전 소득 구간에 걸쳐 향후경기전망은 하락한 모습을 보이며 소비심리가 실제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차트3]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 연속 반등을 기록.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소비지출전망 상승세.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과 임금수준 전망이 정체된 모습. 향후 실제 소비 지출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기업심리 부진, 채산성 부담이 큰 상황

소비자심리와 달리 기업심리는 반등을 못하고 있다. 아직 장기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난 9월 크게 둔화된 이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11월 업황 BSI는 전월과 동일한 90을 기록하며, 지난 9월부터 회복을 못하고 정체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업황 BSI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볼 때, 지난 10월과 비교해서 개선된 부분은 생산(+6pt)과 더불어 가동률(+3pt)이 전월대비 상승했고, 신규수주(+3pt)가 전월대비 반등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채산성 실적(-6pt)과 인력사정(-3pt)이 전월대비 하락하면서 업황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 경영애로사항에 있어서 가격부담 요인이 여전히 1순위로 꼽히고 있어 기업의 채산성 부담이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이슈가 익월에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제조기업의 12월 채산성 전망은 11월 대비 -5pt 하락한 79를 기록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급측 병목 현상 요인들로 지목되었던 이슈들이 차츰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어 채산성 하락은 저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과정에서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 이익 모멘텀 둔화의 불편한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트5]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현재 업황 실적과 익월 전망 모두 정체된 흐름이 지속.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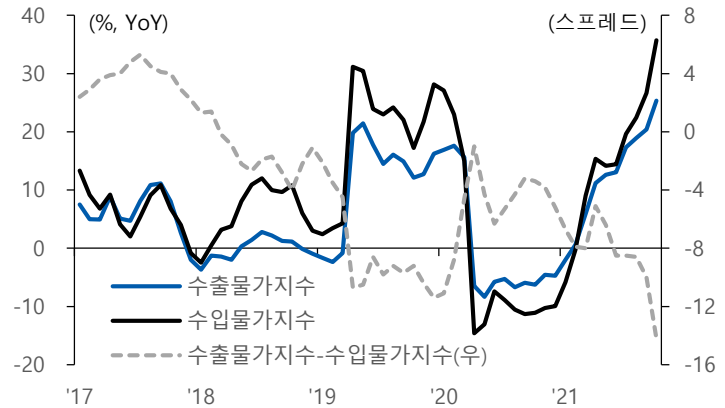
[차트6] 제조기업의 이익 모멘텀과 연결될 수 있는 채산성 상황과 전망 모두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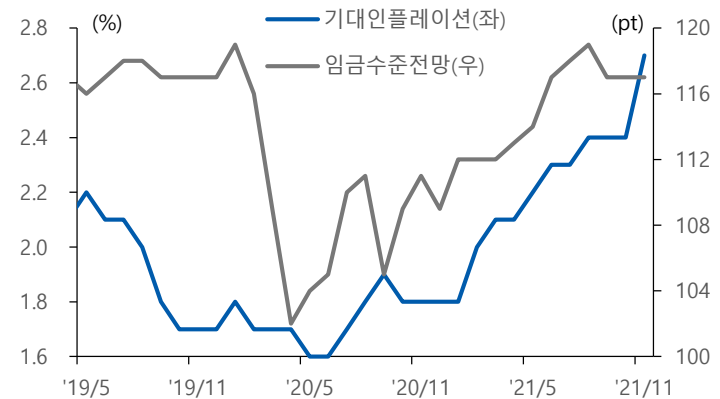
Key Chart

한국의 수출입 물가 추이. 수출물가 대비 수입물가의 빠른 상승은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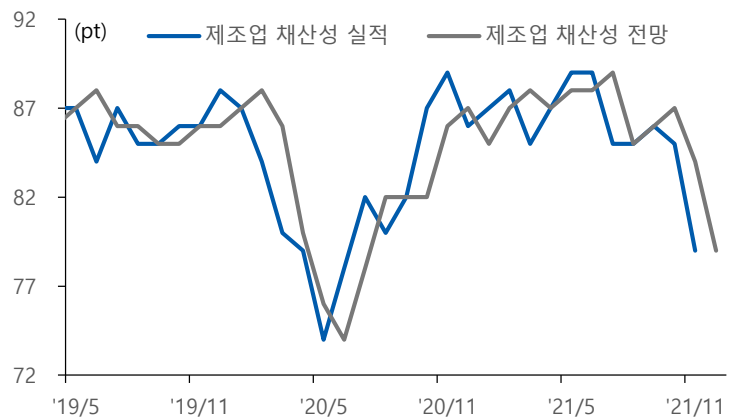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1월 한국의 소비자심리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과 임금수준 전망이 정체된 모습. 향후 실제 소비 지출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조 기업의 이익 모멘텀과 연결될 수 있는 채산성 상황과 전망 모두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